



▲ 전북 완주지부 사무실 앞. 아래쪽 좌측부터 완주지부 박정희 간사, 강경철 지부장, 전북도협의회 이경이 간사, 위쪽 좌측부터 완주지부 반영태 부지부장, 김석주 회원, 최병채 회원, 이충교 회원

회원들이 다함께 참여해 결속력 다지는 전북 완주지부

취재 : 정재은

전북 완주지부(강경철 지부장, 만 49세)는 회원들이 지부사업과 운영, 해결해야 하는 현안 등에 다함께 참여하는 결속력 있는 지부이다. 아울러 완주지부의 일부사업은 전라북도 타지부의 모범 사례로 벤치마킹 되고 있으며, 타지역 회원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완주지부는 기자재 공동구매 사업을 통해 회원들이 다양한 기자재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필요로 하는 경우 전북지역 회원농가의 노폐돈을 공동으로 처리해 나가고 있다. 또한 관급백신을 양돈농가에 공급해주는 업무를 도맡아 하고 있다.

매월 월례회의를 열고 유익한 정보를 교환하고 있으며, 회원들은 단합하여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다. 그밖에 1년에 1번 여름에 부부동반으로 야유회를 가며, 다양한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서로 친목을 쌓고 있다.

전주완주지역을 중심으로 전북도 양돈산업을 주도해 나가는 완주지부

완주지부는 전주완주지부로 1983년 6월 23일 설립된 이후 2003년 8월 22일 이사회 승인을 통해 완주지부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전라북도 지역 양돈인 모임이 완주지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다가 각 시·군별로 세분화가 되었다.

현재 전주완주지역에서 50두 이상 규모 62 농가가 5만3천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28명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고 4만7천두를 사육하고 있다. 전업규모 수준의 농가는 대부분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지역 전체 사육두수의 90% 가까이를 회원들이 사육하고 있다.

임원은 현재 제12대 강경철 지부장을 중심으로 반영태 부지부장, 김인철 총무 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임원을 비롯한 회원들이 다함께 지부사업과 지부운영에 동참하고 있으며,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공동으로 대처하고 있다. 아울러 박정희 간사는 모든 업무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보좌해 나가고 있다.

한편 전북도협의회(송정기 도협의회장)가 바로 지부사무실 옆에 위치해 있어 전북도 양돈산업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애쓰고 있다. 기자재 공동구매 사업은 타지부의 모범이 되고 있으며, 노폐돈 공동처리 사업은 타지역 회원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봉사정신을 발휘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기자재 구매사업과 노폐돈 공동처리로 회원들에게 혜택 제공

완주지부는 1993년부터 기자재 구매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다양한 종류의 니플, 워터컵, 단미기, 장착기, 무표기, 급이기, 포유기,



▲ 전북 완주지부 강경철 지부장(양돈자조금 관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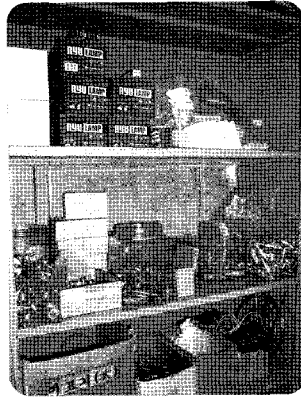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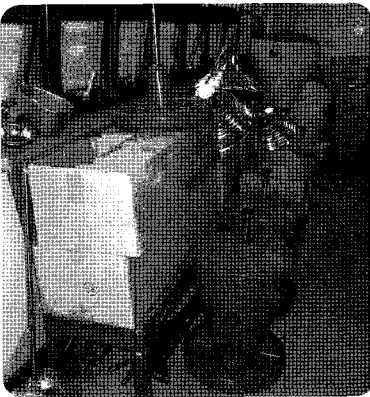
▲ 완주지부 임원진(좌측부터 김인철 총무, 강경철 지부장, 반영태 부지부장)과 박정희 간사

할로겐등, 적외선램프, 삼날 등 대부분의 기자재를 구매해 사무실에 항상 비치해 놓고 있다.

회원들은 필요한 기자재를 즉시 구입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 구입할 때에 비하여 20% 정도가 저렴하기 때문에 비용절감의 혜택을 얻고 있다. 한 업체와 지속적으로 거래하고 있어 신뢰가 형성되어 있으며, 철저한 A/S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일부 이익금으로 지부를 알차게 운영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완주지부는 전주완주지역 뿐만 아니라 임실, 진안지역 일부 회원농가의 노폐돈을 공동으로 처리하고 있다. 개인이 처리할 때에 비하여 번거로움이 줄어드는 이점이 있다.

한편 지부사무실에 백신냉장고가 마련되어 있으며, 신선한 관급백신을 양돈농가에 공급해주는 업무를 하고 있다.



● 완주지부는 다양한 종류의 니플, 워터컵, 단미기, 장착기, 무표기, 급이기, 포유기, 할로젠등, 적외선램프, 삽날 등 대부분의 기자재를 구매해 사무실에 항상 비치해 놓고 있다. 회원들은 필요한 기자재를 즉시 구입할 수 있다.

월례회의 개최로 의견교환 및 투명한 지부운영

완주지부는 질병 발생 때를 제외하고 매월 13일을 전후로 월례회의를 빠짐없이 개최한다. 양돈현안이나 방역관계, 협회소식 등의 내용을 전달해 주고 있으며, 시세적용과 같은 문제에 대해 회원들은 서로 의견교환을 해나가고 있다. 2개월에 1번씩 정도는 관련업체의 지원으로 사양 및 경영관리, 질병예방, 분노처리 등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함으로써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회원들은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

고, 완주지부는 행정기관이나 관련업체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지부 회비는 연 20만원(월 2만원)이며, 협회 회원으로 가입을 유도하고 6월 상반기 내로 회비를 완납하고 있다. 또한 매월 지출장부를 작성하여 월례회의 때 결산내역을 공개하고 있다. 회원들은 다같이 참여하고 검토하는 자세로 지부상황을 파악하고 투명하게 지부 살림을 꾸려나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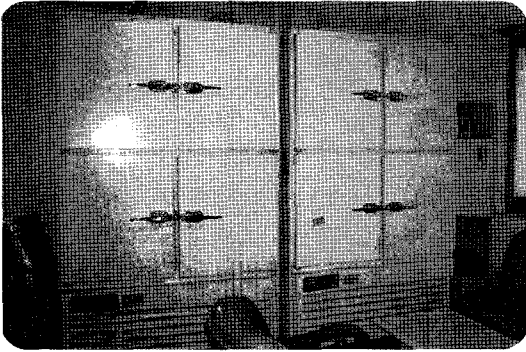
다양한 행사 참여로 친목도모 및 이미지 제고

완주지부는 결속을 다지기 위해 1년에 1번 정도 여름에 부부동반으로 야유회를 가고 있다. 양돈이라는 힘겨운 일을 하면서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고, 삶의 활력을 찾는 계기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국제축산박람회나 브랜드전, 꽃돼지 축제, 포크페스티벌 등의 다양한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서로 친목을 쌓아나가고 있다.

또한 본회에서 주관하고 있는 2004 이웃사랑 돼지고기 보내기 성금으로 20만원을 기탁하는 등 불우이웃 돕기에 동참하여 양돈산업의 이미지를 향상시켜 나가고 있다.

원활한 자조금 납입이 이루어지도록 최선 다할 터

강경철 지부장(양돈자조금 관리위원)은 “양돈농가와 양돈산업 발전을 위한 양돈자조금



▲ 지부사무실에 백신냉장고가 마련되어 있으며, 완주지부는 신선한 관급백신을 양돈농가에 공급해주는 업무를 하고 있다.

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납입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하고, 자조금이 유용한 곳에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전북지역 납입률이 타지역에 비해 낮은 편인데, 협회 윤주성 부회장, 부안축협 오근호 조합장 등과 함께 도축장을 지속적으로 방문해 자조금이 잘 걷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제약이 많은 환경여건 아래 양돈농가는 자조금 거출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자신의 문제를 개선해 나가는 것임을 인식하고 적극 협조해 나가야 하며, 자조금은 돼지고기 소비촉진과 균형 있는 소비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TV광고 등의 홍보활동 위주로 사용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 각종 정책 및 제도의 불합리한 측면 개선을 위해 단합하고 노력해야

반영태 부지부장은 시세적용이나 백신공급에 있어 불합리한 측면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회원과 지부, 협회가 단합하여 건의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인철 총무는 “전북지역에서는 등락이 심한 서울 농협공판장 시세가 적용되고 있어 농



▲ 완주지부의 경우, 임원을 비롯한 회원들이 다함께 지부사업과 지부운영에 동참하고 있으며,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공동으로 대처하고 있다. 좌측부터 박정희 간사, 강경철 지부장, 김인철 총무, 우측부터 최병채 회원, 반영태 부지부장

가가 어려움이 많다.”며, “정부에서 군납가격과 보상가격 등 책정시 전국시세가 적용될 수 있도록 협회에서 요구를 해야 할 것이며, 정부에서부터 전국시세 적용이 이루어진다면 각 지역에서도 자연스럽게 전국시세가 적용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관급백신을 공급해 줄 때는 현실성 있게 농가가 원하는 돼지단독과 돈열, TGE와 PED 등 혼합백신 공급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다.

강경철 지부장은 “올해 PMWS 등 소모성 질병의 발생과 사료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가 많다.”며, “국제 곡물가격 하락과 환율 안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하루 빨리 조합을 비롯한 사료업체에서 사료가격을 인하해 주길 바란다.”고 피력했다.

한편 완주지부 임원들은 “회원들과 관련단체는 단합하여 협회의 힘을 키워 나가고, 각종 문제와 건의사항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감으로써 양돈인들의 권익보호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양돈**